

10/18/20

설교 제목: 벤엘의 하나님

전하는 이: 김순배 목사

말씀: 창세기 27 장 41-46 절, 28 장 1-5, 10-22 절

(창 27:41)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절관주** 창 33:3, 왕하 8:20

(창 27:42) 만아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리매 이에 사람을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네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 하니

(창 27:43) 내 아들이야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창 27:44) 네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절관주** 창 31:41

(창 27:45) 네 형의 분노가 풀려 네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잃으랴

이삭이 야곱을 라반에게 보내다

(창 27:46)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헷 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헷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이까: **절관주** 창 26:34, 창 26:35

(창 28:1)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창 28:2) 일어나 밧단아람으로 가서 네 외조부 브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네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창 28:3) 전능하신 하나님이 네게 복을 주시어 네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네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창 28:4)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네게 주시되 너와 너와 함께 네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네가 거류하는 땅을 네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절관주** 창 12:2, 창 22:17

(창 28:5) 이에 이삭이 야곱을 보내매 그가 밧단아람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렀으니 라반은 아람 사람 브두엘의 아들이요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 리브가의
오라비더라

- (창 28:10)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 (창 28:11)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 곳의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 (창 28:12)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 (창 28:13)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यो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 (창 28:14) 네 자손이 땅의 티끌 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 (창 28:15)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절관주** 창 35:7
- (창 28:16)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 (창 28:17)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 곳이어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절관주** 출 3:5, 수 5:15
- (창 28:18)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 (창 28:19) 그 곳 이름을 벰엘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 (창 28:20)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 (창 28:21)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 (창 28:22)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십분의 일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절관주** 창 35:7

야곱이 아버지를 속여 아버지가 형에게 주려고 했던 축복을 받아갔습니다.

형 에서는 이 사실을 알고 분노하여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야곱을 죽이겠다고 작정합니다.

본래 자신의 것이었던 축복을 야곱이 빼앗아 갔다고 생각한 까닭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에서의 착각이었습니다.

그 복은 하나님이 에서와 야곱이 아직 어머니 리브가의 뱃 속에 있었을 때부터 야곱에게 주시기로 예정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래 그 복의 주인은 에서가 아니고 야곱이었던 것인데 이삭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아니하고 자신의 뜻대로 에서에게 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들의 서로 속이고 속는 비열한 행동 가운데서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여 당신의 뜻과 섭리를 이루어 내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의문을 품게 됩니다.

하나님은 결과가 당신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만 하면 그 과정에서 범한 죄들을 그냥 눈감아 주시느냐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죄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그것이 비록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죄를 반드시 심판하셔서 죄 값을 치르도록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죄에 대한 심판이 꼭 죄인을 멸망시키기 위함만은 아닙니다.

특별히 죄를 진 자가 택자일 경우 하나님은 죄에 대한 징벌을 통해 그가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아버지를 속여 축복을 가로챘습니다.

야곱이 그런 비열한 술수를 쓰지 않았더라도 그 축복은 야곱에게 돌아 갔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때를 기다리지 않고 자신의 생각대로 일을 저질렀고 그 죄로 인해 죄 값을 치르느라 참으로 파란만장하고 험난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고난 속에서 결국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 진정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본문을 보겠습니다.

본문을 기점으로 아버지를 속여 축복을 받아낸 야곱의 파란만장한 인생이 전개됩니다.

야곱이 아버지를 속여 자신의 축복을 빼앗아 갔다고 생각한 에서는 분노하여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야곱을 죽이기로 작정합니다.

(창 27:41)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에서의 결심을 알아챈 리브가는 야곱을 하란에 살고 있는 자신의 오라버니 라반 집으로 피신시키려고 마음먹고 먼저 야곱에게 말합니다.

(창 27:42) 만아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리매 이에 사람을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네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 하니

(창 27:43) 내 아들이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창 27:44) 네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창 27:45) 네 형의 분노가 풀려 네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잃으랴

리브가는 하루에 너희 둘을 잃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리브가는 에서가 동생 야곱을 죽일 경우 하나님께서 에서를 가만두지 않으실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야곱은 형 에서의 손에 죽고 에서는 하나님의 손에 심판을 받게 되기에 이런 불상사를 피하고자 에서의 분노가 누그러질 때까지 야곱을 임시로 피난시키고자 한 것입니다.

리브가는 에서의 분노가 몇 날이면 누그러질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야곱에게 몇 날 동안 외삼촌 라반 집에 피신하 있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리브가의 생각과 달리 이 몇 날이 몇 십 년이 되었고 리브라는 결국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야곱을 다시 보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리브가는 에서가 야곱을 죽일려고 한다는 사실을 차마 이삭에게 말하지 못하고 야곱의 결혼 문제를 핑계 삼아 야곱을 라반의 집으로 보낼 것을 종용합니다.

(창 27:46)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헛 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헛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이까:

리브가의 말을 들은 이삭은 그 말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여 야곱에게 밧단아람으로 가서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으라고 당부합니다.

(창 28:1)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창 28:2) 일어나 밧단아람으로 가서 네 외조부 브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네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창 28:3) 전능하신 하나님이 네게 복을 주시어 네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네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창 28:4)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네게 주시되 너와 너와 함께 네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네가 거류하는 땅을 네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삭은 야곱을 보내면서 지난 번에 축복한데 이어 또 다시 축복을 해 줍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야곱에게 그대로 계승되고 있는 순간입니다.

이삭은 '하나님이 네게 복을 주시어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네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라고 축복합니다.

이 말은 단순히 육신의 혈통의 번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영적 이스라엘의 번성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모두가 다 이스라엘이 아니라 약속을 따라 난 자만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을 통해서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통해서 영적 이스라엘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주님의 몸 된 교회가 바로 영적 이스라엘입니다.

또 이삭은 야곱에게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네게 주시되 너와 너와 함께 네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네가 거류하는 땅을 네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라고 축복합니다.

야곱과 그의 자손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을 차지하게 해달라고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가리킵니다.

야곱은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받고 아내를 구한다는 명분 하에 외삼촌 라반이 살고 있는 하란을 향해 갑니다.

명분이야 그럴싸 하지만 실제로는 형 에서를 피해 부모형제 그리고 집을 떠나가는 것입니다. 가는 도중 날이 저물어 한 곳에서 유숙을 하게 됩니다.

(창 28:11)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 곳의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신세가 처량하기 그지 없습니다.

아버지의 축복을 받긴 했지만 현실은 복과 거리가 멉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받은 축복이 무용지물이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야곱과 함께 하십니다.

(창 28:12)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창 28:13)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창 28:14) 네 자손이 땅의 티끌 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창 28:15)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은 꿈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체험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셔서 먼저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신이 바로 네 조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던 그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네가 누워있는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실 것이라' '네 자손이 땅의 티끌과 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 것이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란 세상 모든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영적 이스라엘을 가리킵니다.

이 말씀은 아버지 이삭에게 받은 축복과도 일맥상통합니다.

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하십니다.

형을 피해 집을 떠나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 처량하게 땅바닥에 누워 밤을 지새고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의 이 말씀은 큰 위로와 소망이 되었습니다.

야곱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 잠에서 깨어 일어나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창 28:16)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창 28:17)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 곳이어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창 28:18)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창 28:19) 그 곳 이름을 벰엘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은 자신의 부족함에 대한 깨달음으로 인해 두려워하며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인인 자신과 함께 해 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전율합니다.

야곱은 자신이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의 이름을 벰엘 곧 하나님의 집이라 명명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만나 주신 곳이라는 말입니다.

야곱은 진정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여 서원을 합니다.

(창 28:20)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창 28:21)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창 28:22)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십분의 일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이 서원은 형식적으로 보면 조건부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조건을 내 걸었다기 보다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반드시 성취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 약속이 성취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을 담아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모든 것의 십분의 일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서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지으면 반드시 죄값을 치르게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것은 우리를 멸망하게 하려 하심이 아니고 오히려 살리려 하심입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그만큼 기대가 있으시다는 표시입니다.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 훈련시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징계 중에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긍휼을 베푸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징계를 받아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 주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모든 것을 통해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만들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늘의 복을 받도록 하십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켜주셔서 궁극적으로 당신이 약속한 하늘의 복을 받도록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시기 바랍니다.